

‘경관’, ‘장소’, ‘이미지’로서의 무등산 읽기*

박철웅**

Reading Mudeungsan Mountain as ‘Landscape’, ‘Place’, ‘Image’*

Chul Woong Park**

요약 : 산은 지리학의 한 분야인 지형학의 주 연구대상이다. 산은 장구한 지질 시간의 흐름과 사건(event)에 따른 자연물의 연속체이다. 또한 이곳을 함께 하거나 스쳐가는 그리고 끝없이 다가오는 사람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차이를 반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편, 지리학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파악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산과 같은 지형에 대한 종합이나 총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무등산을 자연적 ‘경관’에서부터 인간주의적 관점의 ‘장소성’, 그리고 표상화된 ‘이미지’로서의 무등산에 대한 지리적 접근이다. 무등산은 ‘경관’과 ‘장소성’과 ‘이미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지리적 재해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지형학의 연구 결과와 유산기, 교가 등의 인문학적 자료, 답사 등을 통합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무등산은 자연과 인문의 결합에 의한 다양체로서의 속성이 드러났다. 또한, 자연경관이 인문학에서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그리고 인문학의 표현에서 자연에 대한 기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자연경관 중 주상절리는 무등산의 대표적 경관으로 지형 경관과 인문학적 관점 모두에서 표상되었다. 그 외, 무등산의 고도, 형체, 볼륨, 접근성 등은 다양한 장소(장소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장소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민의 무등산의 이미지는 깊게 내재화된 인식으로 남아 있다. 이로써 무등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향후, 지역의 규모보다 작은 스케일인 산지지형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에서 종합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요어 : 무등산, 자연경관, 주상절리, 장소(장소감), 이미지, 유산기, 교가

Abstract : Mountains are a main subject of geomorphology, a subfield of geography, are different landscapes and places reconstructed by people. In geographical research, the interpretation of landscape has been theorized in a number of ways. However,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the overall and collective nature of Mudeungsan mountain.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a geographical approach to Mudeungsan as a natural ‘landscape’, a ‘place (sense of place)’ in humanistic geographical viewpoint, and a representational ‘image’. In order to clarify the point that ‘landscape’, ‘place (sense of place)’ and ‘image’ of Mudeungsan, it is analyzed materials that are the results of geomorphological studies, fieldwork, and humanistic ‘Yusangi’ literature and school song. Research results have shown that Mudeungsan is revealed the attributes of manifold by landscapes, Yusangi, school song. Also, It is founded, how natural landscapes were read in humanistic Yusangi, and its converse. The columnar joint of landscapes is a represented landscape of Mudeungsan. In addition, the altitude, shape, and volume, and accessibility of Mudeungsan is still affected, affecting the formation of various the sense of place. Mudeungsan has been imaged deeply through school songs. This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ountain and humans is closely related and continuing.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such this approach will b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geographical approach to mountain landform that is smaller scale than a region.

Key Words : Mudeungsan, Natural landscape, Columnar joint, Place (Sense of place), Image, Yusangi, School song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과제번호: 2017-2816)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cw@jnu.ac.kr)

I. 머리말

사람의 유일한 외쿠메네(Ökumene)는 지구이다. 지구 즉, 거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한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Berque, 1996). 지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과 오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적응해왔다. Buttimer(1993)는 지리학을 인류의 집으로서 지구에 대한 연구로 보았다. 이런 관계의 지속에서 자연의 개념이 생기고, 사회의 개념이 형성되고, 지리적 개념도 출현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은 경관으로서 객관적 요소가 되고 동시에 주관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된 과정의 연속체가 된다. 그리고 장소가 되고 장소는 이미지로 사회화된다. 이러한 과정과 개념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경관이면서 자연의 요소인 것은 산이다. 현재, 산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육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은 인간의 자연과 인문환경으로서 강의 근원지가 되고, 산업발전, 기후의 영향 및 생물종 보호지, 인류의 휴양지로서의 실용적 역할도 증시 되고 있다. 이 결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정상회의(global summit)에서 채택된 「아젠다 21」로 산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적 프레임워크와 토대가 만들어졌고, 2002년에는 ‘세계 산의 해’를 제정하는 등 그 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비율이 70%가 넘는다. 비산비아(非山非野)인 구릉대를 포함하면 산 아닌 곳이 드물 정도이다. 따라서 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연이고 삶터로 인식되어 왔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갖고 내려온 태백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랜 불교의 유입에도 산 신앙의 원형인 산신각이 사찰과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산은 우리에게 시작점이 되었고, 일반명사이면서 고유명사로 실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은 경관 상 신기산지에 비해 낮고 완만하다. 산이 많으면 곡이 많고 곡이 많으면 물줄기도 많다. 그래서 일찍부터 금수강산으로 심상화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산들이 겹겹이 겹쳐 있어서, 가까운 산은 길게, 멀리 있는 산은 열게 보인다. 농암의 차로 거리감을 표시하는 산수화는 이 때문이다. 또한 산이 높다는 말 대신 깊다는 말로 표현하는 속에서 산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특히, 지리학 밖에서 우리나라의 산지를 낮고 완만한 ‘노년기 산지(지형)’로 인식하여 부드러운 선으로 풀어내는 조형적 의식의 예(서혜연, 2004; 주남철, 2006)

도 있다.

따라서 산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의 장소, 지역의 표상으로 남아 역사, 문학, 예술문화의 기저로 자리한다. 다른 한편, 산은 우리에게 물질적 형상을 가진 실체(entity)로 거기에 항상 존재한다는 위치성도 갖고 있다. 즉 ‘거기’와 ‘있다’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존재적 장소라 할 수 있다. 그 산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이며 장소이다. 산은 이런 유일한 자연적 존재에서 일찍부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관이면서, 삶의 장소이면서, 관계의 이미지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산도 도시처럼 다양한 경관, 풍경, 이미지, 재현, 해석, 담론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산 자체가 거대한 텍스트이고 기호로 볼 수 있다. 현재, 지리학에서 산은 경관으로서 지형학 그리고 문화지리학적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Gregory에 의해 문화지형학(cultural geomorphology)이란 용어가 제안되기도 했다(Goudie and Viles, 2010). 이 점에서 산은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등산을 이런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II. 개념에서 이해로

본 연구의 대상인 무등산은 일찍부터 주상절리와 같은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신성과 종교, 주산과 배산, 피난 및 은둔, 빨감이나 식량 채취, 문학과 기행의 대상으로, 최근에는 군사지나 등산, 공원, 자연보호의 대상 등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사회·문화·정치에 관점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재구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리학 관련 분야들이 무등산을 논할 때 주로 지형적 요소나 사상(事象)에 집중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박승필, 1996; 양해근, 2004; 오규근·김보현, 2010; 안건상, 2010; 오종주, 2012). 즉, 자연의 법칙은 원자를 다룰 때나 대륙 또는 행성을 다룰 때나 변함이 없다는 Marsh(1864; 홍금수 역, 2008)의 말처럼 주로 지형에 대한 환원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결과로는 자연적 존재가 지리학의 개념적 존재로 치환되었을 뿐이다.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은 되지만 뜻(sense)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Bames and Gregory(1997)가 말한 것처럼 학문 분야로서 지리학은 파편적이고 이

론(異論)적인 특성이 뚜렷하다. 따라서 지리학은 학문적 기능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문의 분류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Fenneman, 1919)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문지리의 접근은 무등산과 같은 규모의 스케일에 대해서 계량적 시도(하경량, 1999) 이외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무등산 연구에 자연지리는 있으나 이해되지 않고, 인문지리는 있으나 문향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리학에는 풍부한 상상력이나 서사의 즐거리가 빠진 채 객관화에만 중시한 결과이다. 더구나 연구 대상이 작은 스케일일수록 지리학은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지질학은 암석이나 지질을 다루지만 ‘geodiversities’를 통해 인문 분야를 포함해서 지질공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전통 인문학은 무등산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하여 풍부한 서사를 만들어 일반 대중과 교감하고 있다.

표면상 지리학을 보면, 미국 「National Geographic」은 지리학은 장소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이며, 지표면의 자연적 특성과 이를 가로지른 인간 사회 탐구라고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Hinchliffe(2005)도 오랫동안 지리학자들은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져왔지만 문화와 자연은 더 이상 완전히 구분된 영역이나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도 자연을 결정하지 않고, 자연도 문화를 결정하지 않기에 자연과 인간은 위상학적으로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간주의지리학자인 Tuan(1977)도 지형학 연구로 출발해 심미적 장소감을 말하고, 지형학자인 Powell(1895)도 그랜드캐니언에 대해 수많은 곡들로 이루어진 심미적 세계 그 자체를 표현했고, 역시 지형학자 Bagnold(1941)도 사막의 ‘바르한(barchan)과 리비아의 사막 사구를 보고 형태의 단순성, 반복의 정밀성, 거시적인 미지의 질서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생명체의 적응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영국의 지형학자 Cornish는 지형학과 다른 지리학 연구를 통해서 1931년에 *The Poetic Expression of Natural Scenery*, 1943년에 *The Beauties of Scenery*와 같은 예술적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였다. 중국 계림지방의 탑카르스트(tower karst, 石林)는 중국이나 18~19세기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 표현(Goudie and Viles, 2010)된 것처럼 자연과 인문이 접한 결과는 상당하다. 즉, 18세기 ‘Grand Tour’에서

부터 오늘날 전 세계의 주요 경관에 대한 여행의 붐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드라마틱한 자연적 경관과 장면을 즐겨하고 있다. 아주 최근에는 대지예술(landart)처럼 자연적이면서 비재현적인 방식으로도 관계하고 있다.

무등산에 대한 자연지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적 접근 태도는 흔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탐구를 전제로 하여, 지리학 및 지질학적 개념이나 수리적 추상화로 환원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주객의 분리에 의한 이성과 경험에 의한 목적론적 지식 생산 과정이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서는 대상과 주체를 분리하지 않고 산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리학자의 개념이 아니라 문학가의 직관에 의한 이해를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Berque(1996) 시인들은 주위 세계에서 존재와 존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았다. 시인 박두진은 노미경(2000)이 밝히듯 ‘산은 예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에 중요한 위상과 가치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자연으로서 무등산은 이런 점에서 직관에 의한 이해와 개념도 함께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리적 스케일에서 보면 무등산은 자연적 경관이나 지형을 빼면 지리적으로 기술할 내용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지리는 큰 스케일의 기술에 익숙하다. 즉, 유길준과 같은 근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도 산지에 대한 설명은, 6개의 대륙별로 일등산(Primary Mountains)과 이등산(Secondary Mountains)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서태열, 2019). 이처럼 지리적 스케일이 크면 지리적 사상(事象)도 풍부해져 상대적으로 객관화하기가 쉽다.

따라서 무등산과 같은 스케일의 지리학적 경관의 기술에는 개념과 문학적 이해 및 공감을 더할 때 지리적 상상력을 풍부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지리적 연구물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산과 관련된 고지도, 고문헌과 지지, 문학작품, 인근 학교들의 교가 등 다양한 인문학 및 일상의 자료를 통해서 지리적인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과학적 객관주의와 주관적 생활세계의 사이에서 간주관성(inter-subject)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학의 체화된 답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한 지리적 사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리학의 분화에 따른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라는 영역의 경계성을 넘어서고, 산이라는 미시적 스케일의 대상을 어떻게 접근하고 종합하여 새롭게 지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III. 무등산의 경관

木内信藏(1960)에 따르면 리히트호펜(Ferdinand Freiherr von Richt'hofen) 이전의 자연지리는 천문, 지문, 수문, 인문 등의 고전적인 분류에서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지리가 자연과 인문의 종합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무등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자연경관의 형태와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 내용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무등산의 형상과 주상절리 및 너덜경 등의 지형요소들의 형태 및 경관에 대한 객관과 함께 옛 문인들의 유산기나 기행문 등의 인문학 적 주관성의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무등산을 읽고자 한다.

1. 산의 형성

무등산과 같은 규모가 큰 산지는 정상부를 포함한 여러 산줄기가 연속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무등산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75.425km²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인증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그 면적은 화산의 적벽과 운주사까지를 포함한 246.31km²로 국립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이렇게 무등산이 경계 설정이 바뀌고 대권역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무등산의 지형과 지질 형성과정과 그 영향권이라는 자연 형성과정과 연관된다.

지구의 나이는 근 46억 년에 이른다. 한반도의 역시 젊지 않은 땅이다. 다시 말해 30억 살 쯤 먹은 늙은 돌로 짠 땅이다(김정배 등, 1997). 이런 타임 스케일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를 1억 년의 1일로 해서 지구사를 축약해보면 46일 소요된다. 무등산은 1일 전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11시 무렵에 형성과정을 끝낸다. 약 1억 년에 가까운 시기에 기획된 것이다. 물론 무등산 주변의 땅은 대략 20억 년 전의 암석으로 변성을 받은 산지들이 분포한다.

중생대 들어와 대보조산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남서-북동 방향의 대량의 화강암이 관입하여 흔히 영동함몰대로 불리는 영산강 분지가 형성되었다. 1억 7천만 년 전에 광주지역에서도 광주화강암이라 불리는 다양한 화강암들이 관입하였다(안건상 등, 2014). 이 화강암은 조암광물의 특성상 쉽게 풍화되어 심부의 화강암이 노출되기도 하고 침식의 진전되어 구릉상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어서 중생대 백악기인 9천 4백만 년 전 무렵에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안산암질 마그마의 화산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현재 무등산의 몸체를 이루고 있다(안건상 등, 2014). 이러한 화산활동 초기에 의한 화산쇄설물들은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화산 일대에 퇴적되면서 화산 서유리의 공통발자국 화석, 천불천탑의 운주사와 고인돌 공원 등의 기본적 암재가 되었다. 8천 7백에서 8천 5백만 년 전 사이의 중생대마그마의 분출로 서석대, 입석대 등 무등산 정상부를 형성하였다(최영선, 1995; 권혁재, 1996; 김정배 등, 1997; 박철웅·김인철, 2012; 안건상 등, 2014; 김상호, 2016).

이러한 화산활동이후 6천 5백만 년 전 신생대 제3기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암석들 특히 화강암이 심층 풍화되었고, 해수면의 상승에 영산강의 침식력이 확대되어 무등산의 서편은 구릉상 지형과 범람원 등으로 넓게 평야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등산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화산암체를 이루고 있어 마치 주상절리들도 드러나고, 전체적으로는 도상구릉(Inselberg)처럼 우뚝 솟게 되었다.

이후 신생대에 들어와 온난 다습했던 오랜 시간의 제3기(권혁재, 2004)를 거쳐, 2백만 년 전후에 시작된 제4기는 지난 6천만 년 동안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대규모 환경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였다(Bradley, 1985). 제4기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되풀이 되면서 노출된 주상절리들은 동결파쇄작용으로 너덜인 암괴의 공급처가 되었다. 많은 주상절리대가 해체되었고 암괴류인 너덜경이 이동되었다(박승필, 1996; 나기남, 1997). 이 중 입석대, 서석대 등은 해체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고산의 산정부에 노출된 것이다. 현재 기후환경을 고려할 때 무등산의 암설지대의 암괴가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암괴의 연대가 최소 5만 년 전으로 이는 암괴가 최소 5만 년 전에 주상절리대에서 해체된 것을 보고 있다(오종주 등, 2012). 결국 무등산의 형성과정은 오랜 지질사적 사변을 비롯하여 지구 기후환경의 변화라는 특정 조건들이 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의 무등산의 모습은 최소 1억 년의 시기에 출발하여 1만 년 전의 기후환경에서 마무리된 과거의 화석지형(relict landform)이다. 현재 무등산의 입석대와 서석대의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국립공원의 보호를 받고,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인증을 받을 정도의 자연유산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을 지형과 지질적 사변으로서의 심층적

이면서 개념적 서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관으로서 표층적이면서 일상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이 지역의 시인 범대순(2013:4-5)은 시집 「무등산」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 산이 명산이고 고을가까이 있고 온화하고 육산(肉山)이라 암석을 타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화순, 담양 등 인근 선비들이나 목백, 현령 등 인근에 벼슬한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그에 대한 글을 남겼거나 바위에 이름을 새겼다...

조선 중기 의병장 고경명은 「유서석록(遊瑞石錄)」에서 입석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남겼다.

...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네 귀퉁이가 옥을 깎아 세운 듯 층계가 첩첩하여 먹줄로 친 것 같았으니 생각건대 천지가 개별할 초두에 아무런 뜻이 없이 결합되어 우연히 기이한 모습을 이룩한 것인가...

(김대현 등 편역, 2010:41)

한편 조선 중기 「유서석산기」를 썼던 정지유는 「월성세교(月城世橋)」에서 무등산을 빗대어 다음과 같은 남기도 했다.

산이 높아 그대여 무등인가/ 사람이 어리석어 나는 무등이라네.
높은 것과 어리석은 것은 비록 다르나/ 그대와 나는 같이 무등이구려.

(김대현 등 편역, 2010:12)

또, 현대에 들어와 노산 이은상은 「노산문선(鷲山文選)」의 ‘무등산 기행」에서 주상절리대인 서석대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일상언어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십 장(丈), 수백 칸의 서석의 무리(瑞石群) 사이사이로 진달래 나무가 봄 기운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키대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제 철이 되면 서석 병풍이 꽃 그림으로 가득 찰 것이나...

(김대현 등 편역, 2010:247)

이처럼 무등산은 산으로서 형성과정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산세, 그리고 주상절리 등의 경관은 옛 사람들의

유산기를 통해 예찬되었다. 이런 무등산의 유산기 및 기행문은 현재 약 20여 편에 이를 정도다.

2. 지형 경관

1) 주상절리

무등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 경관은 주상절리임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그림 1). 흔히 말하는 주상절리대는 주상절리 바위가 모여 있는 경관상의 명칭이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을 비롯 지왕봉, 인왕봉이 정상부의 긴 능선을 이루고 그 아래에서 서석대, 입석대, 규봉암, 승천암, 광석대, 신선대 등 수많은 기둥모양의 주상절리가 나타나고 있다. 주상절리(columnar joint)를 곳에 따라 입석(대), 국수바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주상절리를 ‘오르간 파이프’에 비유하여 이곳을 오르간파이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지형학의 용어인 ‘주상절리(柱狀節理, columnar joint)’는 기실 모두 기둥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된 지형 용어이다. 영국의 주상절리 ‘Giant’s Causeway’나 미국의 콜롬비아 고원의 ‘Columnar-blocky jointing’도 이름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대포리 해안의 지샛개의 주상절리가 있고, 포항 연일읍 달전리의 주상절리, 울릉도의 국수바위나 공암도 역시 잘 알려진 주상절리이다. 북한의 금강산의 충석정은 기둥모양은 같지만 화강암에 발달한 또 다른 주상절리이다. 고흥과 같은 해안가 마을에서 ‘용암’이라고 부르는 바위도 다른 암석에 관입되어 나타나 는 관입암형 주상절리인데 이를 바다에서 땅으로 치솟



그림 1. 무등산 입석대의 주상절리
출처 : 2006년 6월 저자 촬영.

는 용에 비유한 것이다(박철웅, 2013).

일반적으로 주상절리의 형성은 이동을 멈춘 마그마의 용융암체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하게 되고 이때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진다. 마치 논이 건조하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형태와 같다. 마그마의 성질이 균일할수록 그리고 냉각 시간과 속도가 적당할수록 육각형에 가까운 주상절리가 잘 발달한다(Ollier, 1988). 육각형이야말로 중심지이론처럼 같은 표면적에서 최적의 공간 면적을 차지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냉각속도가 빠르면 기둥은 작아지는데 이에 비해 무등산의 주상절리는 지름 규모는 1m 이상이 많고, 높이도 10여m에 달한 것이 많다(광주광역시, 2013). 거기에 무등산의 주상절리는 단단한 석영안산암질응회암(decite)로 되어 있다. 이처럼 대량으로 산 속의 지하에서 굳으면서 거대한 기둥 형태로 발달한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 희귀성을 갖는다(광주광역시, 2013).

대체로 해안이나 지하수면과 접촉이 쉬운 지표 낮은 곳에 발달하는데 비해 해발 1,000m 가까운 산지에 이처럼 거대한 주상절리를 이룬 것 자체가 드문 예인 것이다.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은 곧게 기둥모양을 하고 있지만 입석대에서 서석대가는 도중의 승천암은 주상이 아니라 지면에 누운 외상의 주상절리이다(그림 2). 또한, 무등산 북봉의 주상절리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다(그림 3). 이런 주상절리의 형상은 용암의 흐름 방향과 장력(張力)의 방향에 따라 휘어지는 경우이다(Ollier, 1988). 이와 같이 녹은 바위들이 굳으면서 수축하여 절리가 생기는 과정은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형상으로 같으면서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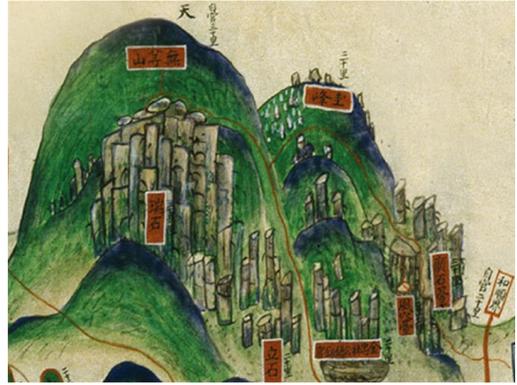


그림 2 고지도 상의 무등산(1872년 광주 지도)
출처 : 규장각 소장본.

른 경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상절리로 개념화시켜 가는 것이 지형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접근이지만 이것은 수많은 다양한 형상과 그 과정 및 의미를 은폐시키는 한계가 있다. 즉, 많은 무등산의 주상절리가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실재(the real)는 한편으로 라캉이 말한 언어라는 상징계(the symbolic)의 개념으로 모두 표현될 수 없다. 언어로 객관화되고 개념화 될수록 많은 실재는 은폐되어 버린다.

우리가 과학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재현적 요소가 산에 있기 때문이다. 무등산이 매번 달리하는 그 무한한 심상과 사람의 경험 과정에서 문득 마주치는 현현(epiphany)에 대해선 지형학적 설명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리학자의 상상력을 끌어낸 Wright (1947)의 “Terra Incognita”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승천암 외상의 주상절리
출처 : 2006년 6월 저자 촬영.



그림 4 사탑모양의 주상절리대
출처 : 2013년 12월 저자 촬영.

이처럼 무등산만이 가지는 첫 번째 지형 경관은 주상절리대이다. 이러한 주상절리대의 기록은 이미 세종실록 지리지(151권)에 “무등산(無等山) 꼭대기에 줄바위가 수십 개 있는데, 삐죽하게 선 것이 높이가 백여 자나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고 기술되어 있다. 고경명의 「유서석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입석암에 당도했으니 양사기(楊士奇)의 시에 이른바 “열여섯 봉우리가 절을 감싸주었네”라는 구정을 이를 두고 말한 것이었다. 암자의 뒤에는 기암이 뽀족뽀족 솟아 올미란 것은 봄 죽순이 다투어 나오는 듯하였고, 희고 깨끗함은 연꽃이 처음 피는 듯하였으며, 멀리 바라보면 의관을 정제한 선비가 홀을 들고 읊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보면 겹겹이 막힌 요새와 철옹성에 무장한 병사 일만 명을 나열한 듯하였다…

(김대현 등 편역, 2010:40)

라는 표현으로 입석대의 형상과 경관상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단단한 석영안산암질 마그마인 주상절리들의 장벽을 철옹성의 요새로 묘사한 것은 그나마 암석의 특성과 결부되는 묘사이다. 이어서 기술하는,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은 네 귀퉁이가 옥을 깎아 세운 듯 층계가 첩첩하여 먹줄로 친 것 같았으니, 생각건대 천지가 개벽할 초두에 아무런 뜻이 없이 결합되어 우연히 기이한 모습을 이룩한 것인가, 아니면 신공(神工)과 귀장(鬼匠)이 바람과 우레를 불러 이 교묘한 솜씨를 부린 것인가?

(김대현 등 편역, 2010:41)

의 표현에서는 입석대의 형성에 대한 궁금은 있으나 이에 대한 것이 신공이나 귀장같은 알 수 없는 주체로 신비화시키고 있다. 다만 바람과 우레에서는 주상절리의 풍화과정을 연상시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과학적 사고에서 연유된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 1926, 「십춘순례(尋春巡禮)」, 백운사에서 입석대를 보고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동쪽 가장자리에 ‘立石’이 새겨져 있다. 입석은 물론 ‘선돌’의 변역일 것이고, ‘산돌’은 우리 원시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었음은 옛날부터 허다하게 증명되어 온 바다. 변변치 않은 돌을 일부러 만들고 세워

서 이를 숭배하는 민속 신앙이, 저절로 만들어져 이렇게 영특하게 생긴 ‘선돌’을 모르는 체 하였을 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느 한편의 표지가 될 무등산 같은 큰 산의 정상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선돌’이 무더기 무더기로 솟아 있으니 산이어서 돌이 귀하기도 하였으리니와 돌로 인하여 산이 더 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등산이 성지(聖地)로, 입석이 신물(神物)인 것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려진 일이며…

(김대현 등 편역, 2010:217)

근대화의 세계에서도 주상절리대의 지형 경관에 대해서 여전히 신비성을 부여하면서 조선 중기의 사고와 비해 진전은 없고 경관의 묘사와 함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주상절리대가 나타나는 규봉암의 경우 사찰 제영사에서 주로 암석바위의 승경을 그린다(임준성, 2012)는 경우처럼 주상절리대는 무등산을 대표하는 경관임이 예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결과로 무등산의 규봉암과 현재 천연기념물인 입석대, 서석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상절리대는 예나 지금이나 무등산에서 가장 탁월한 암석미를 가진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묘사와 서술은 대부분은 주상절리의 형상과 지형요소가 질서 있게 섞여 있는 경관 그 자체를 본 것이지 단일 지형요소로서 그 바위 형상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물진 않았다. 다만, 유산기나 기행문에서는 지형요소와 경관 자체에 대한 생성과정이나 성인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와 의문의 발화가 없고 감성적 측면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무등산의 유산기는 있어도 산기(山記)나 중국의 태산지와 같은 산지(山志)로 남아 있지 못한다. 과거 산에 대한 유생들의 제한적인 관점은 산에 대한 고지리의 지식에 한계이다.

2) 너덜경(암괴류)

무등산의 너덜경 지대는 주상절리대에 가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경관이다. 하지만 무등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암석경관이다. 지형학적 측면에서 이 암괴류인 너덜경은 주상절리대와 함께 지형적 한 세트이다. 왜냐하면, 무등산의 ‘너덜’ 역시, 과거 주빙하기후 환경 하에서 단애상의 주상절리대에서 동결 파쇄된 암괴이고 이 암괴들이 그 기저부에서 무리를 지어 암괴류(巖塊流, block stream)를 이룬 경우 ‘너덜경’이라 일컫기 때

문이다. 현재 지형이나 지질학적 연구는 성인상 이를 에 추(talus)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무등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해발고도 약 400m까지 대부분의 사면에서는 거력들(너덜)이 넓게 드러나는데, 이중 규모가 큰 '너덜'은 광주에서 바라보이는 동사면에 분포하는 '덕산너덜'과 무등산 정상부 아래 남사면에서 분포하고 있고, 광주읍지에는 기록된 '자공너덜'의 두 곳이다.

이들 너덜경 사면은 평균 경사가 25~30°이며, 수목으로 덮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식생이 없어 거력군이 잘 드러난다(박승필, 1996; 오종주, 2012; 오종주 등, 2012a; 2012b).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식생으로 피복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너덜들은 하부의 매트릭스 물질과 함께 매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무등산 너덜의 주향분석에서는 주로 서, 남서, 북동 방향의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무등산의 거대한 너덜경 역시 주상절리와 같이 오늘날 환경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화석지형이다(박철웅, 2017). 이런 지형은 Watson(1970)에 의하면 주빙하의 전형적인 산물로 보았다. 무등산 일대를 피복하고 있는 거력군을 지난 빙기에 주빙하 환경 하에서 형성된 암괴원(block field) 또는 암괴류(block stream)로서 후기갱신세의 빙하기에 생성된 일종의 화석지형으로 보았다(장호, 1983; 박승필, 1991; 박철웅, 1994).

이런 너덜경 중에는 그 자체의 돌무더기로서의 퇴적 경관만을 보여주지 않는 활동적이고 현상적인 너덜지대도 있다. 무등산 북산 아래 북사면의 너덜에서는 바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온혈 현상이 나타난다.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고산 지대의 암괴사면에서 이런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는 예는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는 사례이고 그 현상 자체가 일반 풍혈과 달리 겨울의 수증기를 뿜는다는 희귀성에서 매우 가치가 크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곳이 현재 약 40여 개 지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수적으로도 매우 주목되는 곳이다(박철웅, 2017). 이상은 주상절리와 세트르를 이루는 너덜에 대한 지형적 접근이다.

이와 같은 너덜에 대해 최남선(1926)은 「심춘순례」에서,

너덜, 너덜경은 암석이 무너진 것이 산비탈에 덮여 있는 것을 말하는 이 지역의 방언인데 금강산에서는 '서드리'라 한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20)

는 점을 기술하여 그 너덜의 유래와 금강산의 '서드리'라고 하는 풀이에 대해 우리가 흔히, 제주도의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지형학적 한글화 작업 시 새롭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이런 주상절리와 암괴류 지형적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다.

서석이니 입석이니 하는 것처럼 무등산이 무등산이 되는 까닭은 깎아놓은 듯한 석벽, 석주가 산 위에 많이 있음인데 이 '너덜'은 덩어리로 있던 암석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도 만들어낸 까뀌밥, 대팻밥이다. 보기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다니기에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무등산에서 그리 좋은 노리개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을 생각하면 5리나 되는 이 '너덜'도 그런대로 참고 지날 수밖에 없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20-221)

특히 기둥을 만들어낸 대팻밥의 표현은 바로 주빙하 환경의 동결파쇄와 같은 기계적 풍화작용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노산 이은상(1958)은 '무등산 기행'에서 이 지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태초로부터 이 산과 함께 생겨나 셀 수 없는 세월을 지나 오면서 꺾이고 꺾이고 떨어지고 굴러서, 저 아래 무수한 너덜경을 이루어 놓으며,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알뜰한 자만이 여기 내로라는 곳이 솟아 있어, 무등산에서도 등급을 가릴 수 없는 최고 지위를 자랑하는 이 총석은 이대로 금강산에 실어다 놓는다고 해도 가장 빼어난 경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55)

이어 이은상(1958)은 이런 지공너덜을 '돌바다'로 불렀다. 그리고 동행한 노인은 말한다.

이 5리나 되는 너덜에 있는 수억 만 개도 넘는 돌은 본래 상봉에 있던 입석이였지라우, 임진왜란 때 덕령이가 깨뜨려다가 내던져서 이렇게 되었지라우. 참말인지는 몰라도 이걸 하루아침 식사 전에 다했다지라우.

(김대현 등 편역, 2010:253)

이런 천연덕스러운 말 속에 너털의 형성과정(너털경의 크기, 너털이 상봉의 입석대가 공급처라는 형성의 의미)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무등산의 전설 김덕령 장군과 결부되어 입석의 표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과 인문적 연관에 의한 검토에서 무등산 부드러운 능선과 풍만한 산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상부에 숨겨진 숫구친 암석미(巖石美)는 바로 무등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경관으로 무등산을 무등산답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무등산의 바윗돌 하나하나가 지난 빙기의 기후 환경에서 벗겨진 속살들의 흔적인 화석(化石)들이다. 현재 온난해진 기후 덕에 잘 자란 숲에 가려 그 일부 속살만을 드러낸 무등산의 너털은 무등산이 가진 두 번째 암석미이고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3) 규봉

무등산 정상에서 화순 이서를 내려다보는 남사면 해발 고도 855m 지점에 규봉암(圭峰庵)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사찰로 기록된 규봉암은 권극화(權克和)의 「서석규봉기(瑞石圭峯記)」에 따르면 신라의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지었다고 한다(임준성, 2012). 한자의 규봉은 규(圭)가 신하들이 들고 있는 네모난 신표(信標)인 흘(笏)로 이 흘을 닮은 바위라는 의미이다. 즉, 주상절리를 의미하는 한자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규봉에 암자가 자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상절리대에서 사이에서 석간수(石間水)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규봉암은 있는 곳의 주상절리대 명칭은 흔히 광석대로 알려져 있다. 광석대의 주상절리는 무등산에서 확인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상절리대로서 그 너비가 2-5m에 이르고 최대의 너비는 7m 이상이 되는 초거대 주상절리도 있다(박철웅, 2013).

두 개의 주상절리가 문의 양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서 흔히 ‘규봉’이라고 부른다(그림 5). 하지만 단순한 형태적 특징에는 매우 중요한 지형학적 형성과정의 실증을 보여주는 주상절리이다. 두 기둥 사이에 작은 지붕처럼 걸려 있는 너털은 바로 상층부의 주상절리에서 떨어진 암괴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상절리가 과거 주빙하 환경에서 동결파쇄를 받아 절리면을 따라 해체되는 과정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두 기둥 사이에 얽혀진 것이다. 즉, 주상절리에서 파쇄된 암괴가 지



그림 5. 규봉의 주상절리

출처 : 2006년 5월 저자 촬영.

상으로 떨어져 암괴류나 애추와 같은 너털지대를 형성한다는 지형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증례인 것이다. 현재 이런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주장절리와 너털의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바로 근처에는 이처럼 특이한 형상과 비슷한 문바위인 석문이 있다. 이 문바위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전설로도 연결된다. 최남선의 「심춘순례」를 보면, 김충장공이 말타기, 활쏘기 연습하던 곳이라 하고 김덕령의 말과 화살과의 빠르기로 내기를 했다는 전설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최남선은 광석대의 경관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서 있는 석주는 삼존석 또는 규봉이라 불리는 것이고, 가로 놓인 바위는 광석(廣石)이라 불리는 것으로 ‘광석대’란 이름의 주인이다. 그 뒤로 입석대의 ‘입석’ 보다 살이 전대 신 맵시는 좀 못한 석주가 여기저기 흩어져 쭈뼛 둘러섰고…

(김대현 등 편역, 2010:223)

라는 묘사와 함께 광석대를 이 빠진 입석대로 비유하기도 했다. 규봉과 문바위는 이후 지형학 및 민속학적 연구 성과를 거쳐 너털경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어 최남선은 지공너털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입석대와 동쪽에 광석대가 위치한 것을 비유로 들어,

조물주는 똑같은 것을 둘도 만드시는 일이 없는데 비슷한 이 두 곳에도 서로 섞을 수 없는 경관을 특별히 애초부터 부여하였다. 기이하고 가파름이 뛰어난게 만든 것이

입석대이며, 웅대하고 중후하게 만든 것이 광석대이다. ...6모8모 날이 서게 깎아서 규구준승(規矩準繩)을 꼭꼭 맞추어 만든 것이 입석대, 아름드리의 큰 나무의 좋은 기둥을 거칠게 쳐서 어긋난 듯 하면서도 빈틈없이 맞춘 것이 광석대, 짠 것이 보이게 짜인 것이 입석대, 헤어진 듯 하지 만 어울리는 것이 광석대이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23)

이러한 주상절리의 비유는 객관적이고 수리적인 측량으로는 전해질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문적 서술로 묘사함으로써 두 주상절리대가 주는 이미지를 확연하게 비교케 한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크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일상의 언어로 재현될 때 지리가 바라는 객관과 주관의 종합될 수 있다.

다만 지형학적으로 형성과정의 가치를 해석할 수 있는 문바위에 대해선 최남선은 단순히 김덕령 장군의 전설로만 매김했다는 점은 이에 대한 의미 부여의 한계인지 모른다. 위에서 문바위의 형성과정에 대한 가설과 객관적인 설명도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지리적 상상력이다. 이것이 김덕령의 전설이나 규봉암에 대한 신비성을 감소시키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문바위의 스토리텔링이나 서사를 꼬집어내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지리와 인문학의 통섭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산은 형성과정과 시기에 따라 여러 지형요소가 결합된 복합체이기에 총체적으로 바라볼수록 미지의 잠재성은 커진다. 기후변동과 지반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형적 차이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명사나 개념으로서의 “산”은 그 잠재적인 차이를 가리고 여러 의미를 외재화시킬 수 있다. 지리는 이와 같은 관점의 종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 실체를 다가서는 지리학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리학에서 차이는 장소성을 확실케 하고 인간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장소와 우리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줄 수 있다.

IV. 장소로서의 무등산

우리에게 무등산은 하나의 공간과 장소로 존재한다. 무등산을 공간으로 보면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이지만 장소로 보면 인간 존재의 구조이고, 세계성을 내

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다. Tuan(1977)에 따르면 공간은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인데 비해 장소는 정지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지금까지의 무등산에 대한 지리학의 접근은 자연지리적 객관과 보편성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관적이고, 의미가 부여된 장소로서 또는 장소감으로서 무등산의 이면에 보다 충실하고자 한다. 즉, 문학이나 기타 인문학이 보는 무등산의 장소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지리학의 겹(gap)을 보충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장소를 제시한 Tuan도 한때는 지형학을 연구한 학자였다. 그가 인간주의지리학의 장소에 집중한 것은 자연과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산이 과학을 통해서 고도로 추상화되면 일반인들은 산에 ‘장소감’을 직관하기 어렵게 된다. 산을 먼저 보고, 느끼기 보다는 주어진 정보와 이론으로 무장하는 한 자연이 순수히 드러내는 장소감을 감지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마냥 직관에만 의존하고, 자연이 주는 풍경에만 정도된 인문학의 텍스트라고 해서 자연 자체에 대한 충분한 지적 이해가 충족된 것도 결코 아니어서 오히려 상상적인 관념에 머무는 경우가 나타난다. 장소는 공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더욱 필요하다. 무등산을 장소로 보려는 것은 바로 이런 객관화되고 추상화된 공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고자 한다.

지리학자 Prince(1961; Gieseking, 2017에서 재인용)가 말한 것처럼 장소에 관한 지식은, 지식의 연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리로 보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는 것이고,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다(Relph, 1976). 무등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일깨우는 장소, 곧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장소를 전제로 한다. 무등산에서의 우리가 인간다워 질 수 있는 것은 의미로 가득한 장소일 때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1. 위치의 장소

위치상으로 보면 무등산은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하고,

호남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화순군, 담양군과 산정부를 중심으로 접경하고 있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6°56′~127°03′, 북위 35°04′~35°11′에 걸쳐있지만 접근성으로 보아 가까이는 광주광역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옛 문헌에도 무등산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志)」 전라도편에 무등산(일명 무진악, 또는 서석산)은 무진(武珍, 지금의 광주)에 있다 하고, 1574년 무등산에 오른 제봉 고경명의 「유서서록(遊瑞石錄)」에서도 서석은 산 이름인데 곧 무등산이니 광주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밖에 조선 후기 때의 문인 이만부의 무등산 기술에서 무진 동쪽에 있다(임준성, 2012)고 전한다. 또 박선홍(1977)은 무등산은 광주의 동쪽에 솟은 전남의 진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뿌리깊은 나무(1983)의 광주시 편에도 “광주가 어디냐 하면 무등산 아래 있고, 무등산이 어디냐 하면 광주에 있다고 한다”는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와 무등산은 다른 지역에 위치상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등산의 수리적 위치에 따르면 온대에 속하여 차를 재배가 가능한 곳으로 무등산차가 유명하다. 한편, 무등산의 주능선 방향은 광주시의 동쪽에서 자리하고 주능선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곧게 뻗어 화순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위치상 무등산은 평야부와 산지부의 가르는 경계이자 섬진강과 영산강을 가르는 분수계에 해당한다. 즉, 무등산을 중심으로 발원하는 물줄기는 광주 쪽을 흘러 광주천을 이루고, 원효사 계곡물은 창평의 증암천으로 되다가 담양에서 영산강 본류에 합류한다. 반면, 무등산 북동부 화순 이서의 물줄기 등은 동북천이 되었다가 섬진강의 최대 지류인 보성강에 합류하고 나아가 압록에서 섬진 본류와 합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호남정맥의 최대 분수계인 무등산 분수계인 것이다. 이 결과 영산강 유역은 평야부를, 섬진강유역은 산지부를 이루는 접경지대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 무등산 위치는 동시에 광주·전남지역 문화권의 산지와 평야부의 문화적 경계를 가르는 곳에 해당한다.

이처럼 산은 주요 강들의 헤드워터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절반 이상은 식수, 가정용, 관개, 수력발전, 산업, 교통을 위해 산에 축적되는 담수에 의존하고 있다(Bandyopadhyay et al., 1997; Viviroli et al., 2007)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결국, 사람은 강을 따라

모이고 산으로는 서로가 나뉘는 것이다(박철용, 2005).

2. 관계의 장소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의 원시 자연 상태의 산은 미지의 공간(novelty space)이고 장소 이전의 상태이다. 무등산도 이러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산은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추구하는 가운데 서있다. 무등산이 인간의 감각에 연결되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공간의 경험이 생성되고, 의미부여가 되면서 장소로서 재구성된다.

1) 신성과 절의의 장소

고도가 높은 산은 산체도 크고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흔히 숭배대상이 된다. 무등산도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자리의 분수계로 산체가 큰 고산으로서 역사적 신령의 장소가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풍후가 높고 큰 무등산은 신라에서는 소사(小祀)의 장소로, 고려에서도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나타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무등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태조실록(太祖實錄) 제3권」(태조 2년, 1393년)에 전국 명산인 지리산, 무등산 등의 여러 산에게 호국의 신(神)이라 하였고, 「세종실록(世宗實錄) 46권」(세종 11년, 1429년)에는 무등산의 병로지용당(井老只龍堂)이 영험한 곳으로 보고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를 지내도록 하여 역시 신령의 장소로서 존재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하지만 신성의 논리 뒤에 통치 논리에 따른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하여 전국의 명산과 대천을 찾아 왕의 기원을 빌었고 무등산의 산신만이 이성계의 왕명에 불복하였다는 내용과 즉위한 후 가뭄으로 무등산에 기우제를 올렸으나 무등산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가 오지 않았다하여 왕명에 불복한 무등산신을 지리산으로 귀양 보내고 이 산을 이후 무정한 산이라 하여 무정산이라고 불렀다(월간 산, 2017년 4월호). 이 내용에서 무등산은 통치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중요시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세종 19년(1437년)에는 무진군의 무등산 묘 위판에 ‘무등산 호국백지신위(護國伯之神位)’라고 썼는데 ‘호국백위’ 네 글자를 삭제하도록 해 품격을 낮추게 했다는 기록에서 무등산은 지배 권력에 반항하는 세력으로 묘사되는 자연의 정치화를 겪기도 한다.

기우제 장소로서 무등산은 「일성록(日省錄)」(정조 5년, 1781년)을 보면 “전라감사 박우원이 무등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과 「세종실록 151권」에 “그 산이 오래 가물다가 비가 오려고 하거나 장차 개려고 할 때에는 우레 소리 같이 우는 소리가 자주 나는데, 수 십리에 까지 들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장소적 이데올로기를 떠나 이런 관계와 경험에서 무등산은 비가 올 확률을 잘 알 수 있는 기우제 장소로 중시된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체의 감각적 경험과 인지적 판단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람들이 물리적, 신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도식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김민성, 2019). 실제, 무등산은 광주 동쪽에 치우쳐져 구릉과 평야가 발달한 서편의 습기가 부딪치는 풍상 측으로 지형성 강우가 내리는 다우지이다. 현 기상청 자료에서도 상류인 광주와 하류인 목포의 연평균강수량(1981~2010년)의 차를 보면 전자(광주)가 1,391.0mm이고 후자(목포)가 1163.6mm로 지역차를 보이는 점과 무등산이 많은 물줄기의 수원지임을 감안하면 기우제를 지낼 만한 중심성을 가진 곳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성시되는 곳이다.

한편으로, 무등산은 「예종실록(睿宗實錄)」(예종 1년, 1469년)에 보면 전라도에 도적이 횡행하여 적도들이 월출산과 무등산의 깊숙한 곳에 숨어 무리를 짓고 낮에 모이고 밤에 흩어지는 장소로 기록되기도 한다. 성종10년(1471년)에는 대마도 왜인이 사인(使人)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결식하면서 전라도의 월출산과 무등산을 유람했다는 기록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처럼 무등산은 산에 대한 타자의 기록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신령의 대상에서 적도나 도적 무리가 숨는 은신처로서 소탕의 대상이 되는 변화에서 자연도 그 자연대호가 아닌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운명의 산으로 장소화가 된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같은 난국에 필요한 것은 영웅이다. 멀리 진주의 왜군을 치기 위해 삼도의 백성에게 마상격문(馬上檄文)을 올리고 의병을 일으켜 장렬한 죽음으로 나라를 구한 의병장 제봉 고경명도 여러 번 무등산을 오르면 그 절개를 배우고 「유서석록」을 남겼다. 특히 무등산에서 그 힘과 용맹을 기르면서 전설적인 삶을 살고 간 충장공은 바로 무등산 아래 즉, 석저에서 태어나 그 기상을 타고 났다. 현재 광주의 중심지인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호, ‘충장’을 따서 일제 때의 본정통(本町通)을 개명하여 산과 사람과의 관계는 장소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김덕령 장군의 구전설화가 담긴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풍암집화(楓巖輯話)」, 「대동기문(大東奇聞)」 등에서의 충직과 절의는 바로 무등산의 주상절리와 같은 끈고 굳센 장소성과 맥을 같이 한다. 김덕령은 무등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관계로 오늘날까지도 장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국한문 혼용인 대한매일신보(1908년 2월 21일자)에 “영웅회의(英雄會議)”, 대한매일신보(1908년 4월 4일자)의 “인걸지령(人傑地靈)”의 제하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 김德齡이왔느냐 無等山이 鍾靈호야 徒手搏虎져 壯拳아 魚頭鬼面一進會가 宣言書自衛團에 蠹國病民可痛호니 魖鬼遂送責任커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1일자; 1908년 4월 4일자)

이처럼 임진왜란과 같은 난국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내던진 인물의 배후에도 인간과 자연 무등산의 관계가 성립하는 지인상관(地人相關)으로 수사화된다.

이후 17세기 문인들은 명승지로서 무등산 주변에 거처를 잡고 관직을 벗어나 이웃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충절과 문학으로 무등산의 절의와 정절을 지켜왔다. 조선 명종 개혁가인 조광조의 유배를 따라 벼슬을 저버리고 무등산을 바라 볼 수 있는 곳에 소쇄원을 지어 몸을 낮췄다는 소쇄 양산보, 김덕령 장군의 충장사, 정지 장군의 사당 경렬사 등이 무등산과 함께 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무등산과 광주의 동일시하는 공감성이 장소로 부각된다. 무등산과 광주는 5.18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이 결합된 장소의 연속체로 재구성된다. 무등산은 새로 존재적 장소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즉, 어머니 품 같은 무등산의 이미지와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표상성이 하나의 연결되면서 무등산-5.18-광주는 장소-사건-장소가 시공간 및 지역이 결합된 다의적 장소감이 결합되기도 한다. 무등산의 자체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변화하고 경쟁하는 시간에서 결합의 유무와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서 무등산-5.18-광주라는 연속체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데올로기화되는 불안정한 관계성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무등산은 반항의 산지인가 아니면 모두를 품는 산

지인가에 있어 많은 담론의 장소가 되고 있다. 아직, 무등산과 관련된 장소의 실천에서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장소감은 기득권 속에 있다. Cresswell(1996)이 특정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장소를 조직하려는 것을 비판한 것처럼 무등산이 특정 기득권의 이데올로기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무등산을 파편화시켜 보기 때문이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무등산은 ‘장소 안의 모든 것과 또 모두를 위한 존재 장소’로서 다가오는 감성이 함축된 총체이다.

2) 실천의 장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무등산은 근대화라는 식민지 정책에 따라 단순한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실천과 실용의 대상이 되었다. 무등산에 수원지, 도로개설, 산림녹화, 국유림 대여와 갈등 등 접근성과 이용, 경관의 개선과 같은 실천과 갈등의 장소로 변화한다, 이와 함께 스키장, 용소 폭포, 피서지로서의 새로운 관광 장소성을 갖는 실용성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호랑이의 출현과 같은 여전히 무등산의 심산유곡을 유지를 보여주거나 비밀결사의 회합 장소 등 저항의 장소로도 실천된다(표 1 참조).

해방 후에는 교육 확장에 따라 무등산의 중심사와 춘목암 별장이 교사로 활용되는 교육의 장소(호남신문, 1948년 9월 19일자)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과 분단은 무등산 곳곳에 전란의 아픔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되

었다. 그런 영향으로 정상은 지금도 군부대의 주둔으로 개방의 장소가 아닌 금지의 장소로 되어 있다. 또한,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없는 사람의 피난처이고 거처로서 삶터가 되었던 장소도 무등산이다. 70년대 개발의 미명 아래 마구 짓밟힌 기층민들의 아픔이 비극으로 변진 ‘무등산의 타잔’ 사건도 무등산 정화라는 상상화에 의한 장소성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무등산은 자연적으로는 단수의 개념화가 가능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복수의 장소로서 기억되고 실천되는 곳이다.

지금의 무등산은 역시 또 다른 기획에 의해 장소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등산객과 행락객에 의해 토양 침식과 산불은 차지하고라도 옛 군부대 자리의 복원이 라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능선의 복원을 불도저식 복원으로 오히려 자연의 장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리학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Prince(1961; Giesecking, 2017에서 재인용)가 시간성을 넘어 장소에 대한 지식은 지식의 사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고리라고 주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 한편에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무등산의 지키려는 ‘geocoservation¹⁾’운동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새로운 자연보호의 행태로서 무등산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도 무등산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윤리성과 관계의 재설정으로 장소로서 무등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1. 일제강점기 무등산 관련 기사 내용과 장소성

장소성	해당 신문기사 내용(1919-1941년)
국유림지	무등산 국유삼림산야의 대여를 싸고 지역민과 군수가 갈등 내용(매일신보, 1919년 6월 3일자)
폭포 장소	무등산폭포는 신비의 효과가 있다는 속어가 고급으로부터 근년에 이르러 광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의 설미가 오는 관광객의 편의에 적합함으로 전남 인근 군은 물론이요, 타도 타군에서도 구 5월 단오와 6월 유두를 당하여 답지하는 신사부녀는 인산인해를 이룸으로써 광주는 이로써 일반 인기를 야기한다(매일신보, 1924년 6월 6일자).
수원지와 유원지	중심사 계곡에 수원지가 생기고 이것이 유원지가 되었다(대한매일, 1926년 9월 6일자).
비밀결사지	무등산의 비밀회합의 청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조선신문, 1928년 8월 25일자)
도로의 개설	무등산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도로 개설(조선신문, 1928년 9월 27일자)
스키장	무등산에다 스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조선신문, 1929년 1월 19일자).
기근 해소 지소	광주의 기근으로 사람들이 무등산에서 나물을 캐느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중외일보, 1930년 5월 14일자).
호랑이 출현	광주에 사는 미국인들이 여름철 피서지로 무등산 산정을 보냈는데, 호랑이가 출현했다(조선신문, 1931년 8월 23일자).
경찰 정신 수련지	경찰 정신의 진작을 위해 영봉 무등산을 등산했다는 기사(부산일보, 1936년 3월 19일자)
신성화(신역화)	무등산을 신역화하기 위해 조림 계획(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자)
산림녹화지	무등산의 녹화를 착작 진척하고 있다(부산일보, 1941년 4월 16일자).

V. 이미지로서 무등산

사람이 어느 한정된 공간에 의식을 투사할 때, 대상이 되는 한 공간과 주체에서 발생한 공간의 이미지가 대응하고 있다. 이 대응 관계는 주체에 의한 공간 인식을 의미한다(內田順文, 1987). 그리고 주체에 의한 경험이 실천되어 장소성이 실재하는 경우에 장소가 되고 이미지로 심상화된다. 무등산도 우리에게 투사되어 공간이 장소감과 장소 이미지로 심상화된 산이다.

과거 호남을 프랜차이즈한 해태 타이거즈 야구단의 선동렬 투수의 별명은 '무등산 폭격기'이다. 이때 무등산은 폭격기로 이미지화되었다.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에서는 호남인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유로움의 긍정을 넘긴 산으로 재현되었다. 이처럼 광주의 무등산은 사회적 집단의 장소 이미지가 특별한 코드 해석 없이도 이해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거나, 개인의 주관과 특별한 언어적 코드를 통해 재현되어 이미지화되는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Tuan(1977)이 말한 것처럼 이미지는 일상의 재현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소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재현되기 때문에 언제나 가변성을 갖기도 한다.

1. 형상의 이미지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은 광양의 백운산(1,218m)을 제외하면 호남에서 가장 높은 산지이다. 하지만 무등산은 평야부와 산지부의 경계에 위치하여 산세의 전체상 더욱 뚜렷이 보인다. 이광수(1917)는 매일신보에 게재한 기행문 「오도답파(五道踏破)」에서 "무진산의 빼어난 봉에는 평생 백운이 걸려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비구름이 걸릴 정도로 높게 보인 것이다. 최남선은 「심춘순례」에서 "모악산 꼭대기에서 전라도 입구 쪽을 보고, 무등산 꼭대기에서 그 안팎의 청사(廳舍)를 한 번 보는 것이다"라고 무등산의 현저한 높이와 그 조망성을 묘사하고 있다.

무등산의 고도는 상대적이다. 고기산지로서 신기산지에 비해 높지 않겠지만 평야부와 접경하는 곳에 위치하고 점에서 광주 쪽에서 바라보는 고도와 산체의 가시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무등산의 고도차가 상당히 크고 적설이 많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겨울철 평균강수량이 118.4mm로 비교적 눈이 많

다. 그리고 무등산이 빠른 첫 눈은 11월 1일에 내렸다(호남신문, 1949년 11월 1일자). 늦게는 춘설이 4월 초순에 내렸다(매일신보, 1931년 4월 7일자)는 내용이 있다. 이런 까닭인지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 무등산에다 스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조선신문, 1929년 1월 19일자)는 기사도 있다. 무등산은 그 만큼 고도에 따른 상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곳이다. 특히 해발 9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겨울에 안개 등 수분이 나뭇가지에 응결하여 피는 눈꽃이 장관을 이룬 상고대(霜高臺)는 주위 산에서 볼 수 없는 무등산만의 전형적인 고산성 기후의 특징이다(그림 6). 식생의 측면에서도 무등산의 1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키가 큰 교목보다 아주 단단하고 키가 작은 관목만이 자라고 있어 고산의 특성을 보여준다.

고경명의 「유서석록」을 보면,

... 정상에 잡목이 없고 다만 진달래 철쭉이 바위틈에서... 모두 가지는 남쪽으로 쏠려 깃발과 비슷했다. 그 지형이 높고 기후가 차갑기 때문에 풍설에 시달려 그렇게 된 것이다.

(김대현 등 편역, 2010:43)

이 글에서 무등산 정상부의 북서면이 평야로 열려 있어 겨울의 북서풍을 마주하는 관계를 알 수 있고, 나뭇가지들이 남쪽으로 기우는 편향수를 관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지와와의 기후 차에 대해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하강한다는 기온 체감률과 함께 한랭건조한 북서풍의 특징을 일상의 경험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관의 기술에도 투사되어 있다. 이처럼 옛 문헌에서도 무등산의 정상부의 경관 묘사가 매우 관찰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림 6. 광주시가지에서 본 무등산의 상고대와 산체
출처 : 2013년 1월 저자 촬영.

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후지형학적 이해의 정도를 재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표현에서 지리적 개념보다 경험적 이해가 일반화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지리학에서 일반인의 경험에 따른 일상적 언어에도 중요한 지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 다른 글에서 무등산의 고도에 따른 넓은 전망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송병선의 「서석산기(瑞石山記)」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지리산, 금성산의 여러 산들이 눈앞에 나열되어 있고, 서로 둘러서서 있는 것이 마치 제후들이 천자를 알현하는 듯 하였다. 서남쪽 넓은 바다는 푸른 띠를 두른 듯하고, 그중에 은은하게 구름 기운이 있는 것은 아마도 한라산인 듯하나...
(김대현 등 편역, 2010:120)

최남선의 「심춘순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만큼 기이한 돌은 물론 금강산에도 없는 거이려니와 그밖에도 입석대 위에서 서서 전남 일대의 아주 아리따운 많은 산과 산봉우리를 짝 내려다 볼 때 멀리 보이는 경치는 진실로 아무 것보다도 선뜻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살아 숨 쉬는 그림이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16)

위의 기술한 내용들은 지금과 다른 청명한 날씨를 통해서 눈으로 바라보는 조망성이 매우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무등산이 호남의 높은 명산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무등산과 같은 1,000m가 넘는 고도의 전망은 명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작용한다. 현재는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을 비롯해 주변의 장불재, 북봉, 중봉에 산정에는 군과 여러 방송사 등의 통신시설들이 밀집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도 무등산이 호남 일대의 전파를 송출하고 송신하기 용이한 고도라는 점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미지이다. 이렇게 지리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재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술적 개념만으로 무등산을 재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 다양한 일상의 언어는 지리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소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등산의 형상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고도와 함께 가지적으로 드러난 산체에서 나타난다(그림 6 참조). 박승필(1996)과 박승필 등(2012)에 따르면, 무등산은 단단

한 화산암이고 주변은 풍화에 약한 화강암지대로서 풍화에 강한 부분은 평야부에 인젤베르그(Inselberg, 도상구릉)로 남은 것이다. 이후 주빙하기의 평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산체가 넓게 퍼진 모양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안건상 등(2014)은 무등산을 소백산맥에 속하며, 정상(해발고도 1,187m)에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이 돌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의 형상과 지질적 특색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무등산 일대는 선캄브리아기 편마암과 고생대 퇴적층,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 그리고 백악기의 다양한 화산암과 화강암이 분포(안건상 등, 2014)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산암인 무등산의 정상부는 풍화에 강하여 주상절리대가 드러나는 암봉인 반면, 심층풍화된 광주화강암은 심층풍화되어 낮은 고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돛상의 산체를 이루는 것이다(그림 6 참조). 그 외 해발고도 8~900m의 사이에서 주빙하기후의 영향으로 동결융해에 의한 사면평탄화 과정을 거친 주빙하성 평활사면 지역이 존재(오종주 등, 2012a; 2012b)하고, 매스무브먼트로 사면을 평탄화 시키는 경향(김현수, 2005)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와 같이 지형학이나 지질학에서의 연구 결과도 무등산의 형상은 완만하고 풍만한 등글한 형상을 개념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암석과 풍화과정의 산물로 무등산은 토산의 특성을 나타내고, 산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인젤베르그와 같은 완만한 돛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지형학적 특성은 풍수적으로는 육산(肉山)이나 덕산(德山)으로 본다. 이를 최남선(1926)은 「심춘순례」에서 ‘홀산’이란 표현을 쓴다. 즉, 인젤베르그를 달리 부르는 표현이고 묘사할 수 있다.

이산 이 홀산으로 등글넓적하게 내려뻗은 것을 형상한 이름인 듯도 하다.
(김대현 등 편역, 2010:217)

다른 일제 강점기 조선신문(1933년 7월 29일자)의 기사를 보면 무등산이 주는 인젤베르그와 같은 형상적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둥근 모양의 무등산을 우러러 이불을 덮고 자는 東山을 떠올리는 무등산은 동산보다 더 등글다...

근자에 들어서도 박선홍(1977)은 풍부한 형태의 ‘육산(토산)’으로 풍수적 해석을 하고, 시인 조태일이 ‘찬 눈에 덮여 서도 무등산은 그렇게도 우람한 만삭이더랴와 같다(이동순, 2009)고 무등산의 풍만함을 이야기 한다. 특히 ‘광주의 어머니 산’이나 또는 2016년에 자유기고가 이돈삼이 묘사한 ‘어머니 품같이 무등’이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은식(2013)이 말한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푸짐하다’는 등의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의 무등산 형상 이미지들이다.

이처럼 무등산의 고도와 함께 능선이 주는 형상적 이미지는 보다 육감적으로 다가오는 가시성에 기반하고 있고, ‘어머니’나 ‘어머니 품’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동양사상의 지대모(地代母) 사상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광주는 그 지대모 사상에 의한 아픈 것을 품어주는 모성의 원천으로 회귀하려는 본성적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2. 지명 속의 이미지

무등산이라는 산명은 자연과 광주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한 하나의 기호로 작용하고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회자되었던 ‘무등산 폭격기’, ‘무등산 타잔’이라는 말은 당시 무등산과 광주의 관계에 대한 은유이면서 이미지이다. 이와 같이 무등산이란 지명에는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 원리가 담긴 하나의 기호이고 이미지이다.

무등산은 백제 이전까지는 무돌이나 무당산이라 일컬었다(박선홍, 2003).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무진악이 보이고, 「고려사(高麗史)」 전라도 해양현에 처음 무등산이 나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무등산(無等山)은 무진악(武珍岳)이로도 하고, 서석산(瑞石山)이라고도 하며 신라에서 소사(小祀)로 하였고, 고려(高麗)에서는 나라의 제사(國祭)를 지냈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산현(光山縣) 산천조(山川條)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무등산의 이칭과 함께 주상절리의 서석(瑞石)의 유래를 말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무등산은 무진악(武珍岳) 또는 서석산(瑞石山)이라 하였는데, 이 산의 서쪽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

가서 있는데 높이가 백 척이나 되므로 이 산 이름인 서석(瑞石)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외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는 무등산의 이칭을 무진악, 서석산, 무악, 무당산, 무덤산, 무정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산 전문지인 「월간 산」(2017년 4월호)에는 무등산의 이칭으로 무돌, 무당산, 무정산, 무진악, 무악, 무덤산, 서석산 등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여러 이칭을 가진 산은 드물다.

이런 지명의 이칭에는 산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의 전화(轉化)에 의한 것으로 김순배(2010)의 주장처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아이덴티티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등산이 위치하는 광주의 지명이 무진주-무주(武州)-해양-익주-무주(茂州)-광주-광산-광주 등으로 강등과 승격을 거듭하는 정치적 부침과 달리 무등산의 이칭에 따른 부침은 없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것같이 무정산의 이칭이 왕명에 불복한 무등산신을 지리산으로 귀양 보낸 후 무정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다.

최남선은 「심춘순례」에서 무등산이 등글넓적하게 내려 뺨은 것을 형상한 것이 무덤처럼 보여 세상 사람들이 무덤산이란 말도 있지만 이는 무당산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무당은 하늘의 신성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며 무덤산과 같은 험오스럽고 부정한 이름을 썼을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오히려 무등산은 근처에 짝이 없는 높고 큰 산이기에 종교에 상응할 가능성으로 천왕봉을 ‘뽕’ 또는 ‘드고리’로 보고 무등은 부처를 비유한 측면으로 보았다. 동시에, 무당산은 신성한 산의 통속적 명칭으로 이를 뜻에 맞게 대응시킨 것이 ‘무등’이라고 주장한다. 무등이 단순하고 밋밋한 둥근 형태를 지칭하기 보다는 우뚝 솟은 신성의 산으로서 이미지에 부합하는 지명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른 이칭인 ‘무돌산’에 대해 박선홍(2003)은 ‘무돌’을 ‘무지개를 뿜는 돌’이라는 뜻으로 본다. 반면 조강봉(2016)은 무진(武珍)의 차자표기가 ‘무돌’이며, ‘무돌’은 무등산에 무수히 많은 주상절리의 돌기둥에서 유래한 것으로 돌이 많다는 의미에서 ‘돌(무리, 衆)과 ‘돌(石)이 합성한 ‘물돌)무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리적 해석상 달리 볼 수 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석영안산암질 응회암으로 매우 단단하고 풍화에도 강한 암석으로 산정부에서 곧게 솟구친 암석 경관을 말한다. 주상절리의 외양은 굳셈과 단단함이다.

이를 빗대서 본다면 ‘무돌’은 ‘무디다’의 ‘무딘 돌’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를 한자화 하면 ‘무(굳셀 武)+돌(石)’이 된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무진악(武珍岳)’이나, ‘무악(武岳), ‘무돌산’ 등은 돌의 강도를 굳셀 무(武)로 차차(借字)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산(山)을 악(岳)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산중에서 화강암같이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멋진 경관을 가진 산을 표한 것으로 관악산, 설악산, 월악산 등에서 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는 무등산이 매우 단단한 돌이 드러난 돌산이라는 의미를 이칭인 ‘무진악’, ‘무악’이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명 자체의 유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연 지명과 그 자연의 형상 및 속성에서 유래를 우선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박철웅(2009)의 연구에서도 예를 들어, ‘관매도’, ‘사매면’, ‘매안리’ 등 ‘매’는 모두 ‘매(梅)’와 관련된 지명으로 알고 있으나 기실 이는 산을 가리키는 고어인 ‘피’, ‘메’의 발음에서 한자화되면서 대부분 ‘매(梅)’자로 차차되기 때문이다.

또 무등산의 서석이나 입석, 규봉과 같은 이름에는 조어(造語)와 차음(借音)에 대한 상형적 감각에 의해 대상 자연의 속성과 결부 짓는 관계도 볼 수 있다. 입석은 그 자체로 선들로 형상과 의미가 바로 부합된다. 그림 7처럼 주상절리에 잘 나타나는 자연적 속성인 격자상의 금. 즉, 절리(jointing)가 발달해있다. 위의 한자의 서(瑞), 립(立), 규(圭), 광(光)의 상형을 주상절리의 절리 패턴과 중첩시키면 그림과 같이 정합시킬 수 있다. 즉, 상형문자의 특성과 자연의 속성이 일치되는 한자 중 의미가 좋은 한자를 가려서 조어를 하여 지명을 붙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瑞), 립(立), 규(圭), 광(光)자는 이의 형상에 일치하는 한자이면서도 아름답거나 상서로운 뜻을 가진 것들이다. 서석의 의미는 응회암에 박힌 유리질이 석양빛에 상서로운 빛을 발하는 돌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명의 의미를 주상절리의 절리(jointing)와 암질의 특성과 결부 짓는 것은 지명을 지리적 이미지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리학에서 자연지명에 대한 접근은 어원이 아닌 그 자연과 지역의 속성과 결부시켜서 접근할 때 산의 이해와 풍부한 서사가 마련될 수 있다. 이처럼 지명은 하나의 기호이면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를 무등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의 한 물아일체성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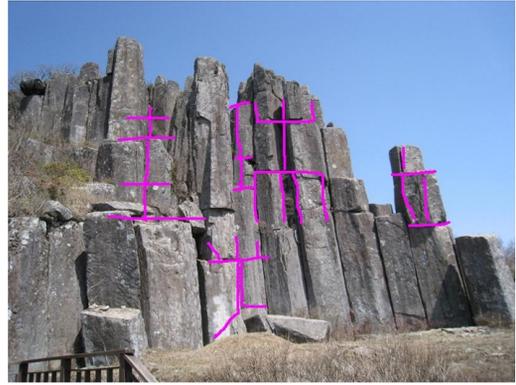


그림 7. 무등산의 입석대의 절리와 지명 한자 출처 : 2006년 6월 저자 촬영.

3. 교가 속의 이미지

학교에서 불리어지는 교가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요소와 지역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가 안에는 학교의 교육 이념을 칭송하고, 그 지역의 역사나 풍토를 가사의 내용으로 담은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김종하·김요찬, 2004).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교가를 행사 때 부르는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창 시절의 기억에 대한 조사에서 약 60%의 응답자가 졸업 후 성인이 된 뒤에도 교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6년 8월31일자). 특히, 矢部恒彦 等(1995)의 연구는 교가에 강조되는 지역 이미지가 산 등 다이나믹한 지형요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교가에 의해 산악 경관상(景觀相)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교가는 지역의 산악 경관상을 이끄는 데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등산의 인접 지역인 광주시를 비롯하여, 화순과 담양의 일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총 274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등산 가사의 유/무에 대해 분석하였다(그림 8 참조).

대상은 초등학교 137개교, 중학교 70개교, 고등학교 67개교이고, 교가의 가사에 무등산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가 98개교(72%), 중학교는 47개교(67%), 고등학교는 48개교(72%)로 평균 약 70% 이상의 학교에서 자연적 경관이면서 무대로서 무등산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본포를 통해서 보면 무등산이 광주시를 비롯하여, 전남의 담양과 화순이 접경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광주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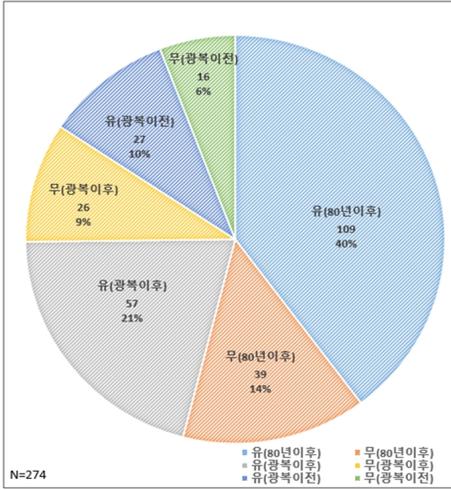


그림 8. 무등산 일대 학교 교가의 '무등산' 표기 유무의 비율

압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다만 1986년에 광주시로 편입된 현 광산구 지역의 학교는 무등산 대신 어등산이나 영산강을 대표 표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무등산 가사의 출현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그림 9). 자세한 가사의 질적 분석 내용은 이후의 과제이지만 교가의 가사에서 무등산의 표상 대상으로 고도, 방향성, 별판의 위치성, 영산강과의 조화를 주로 들고 있고, 그 은유적 비유는 주로 '기상(정기)', '아침 해', '구름', '품' 등으로 나타나면서 무등산이 주는 그 푸른 기상과 정기를 닮고자 하는 비유가 드러나고 있다(그림 9, 표 2 참조).

이처럼 광주의 무등산은 교가 속에서 확고한 심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학교의 교가에 무등산이 '거가있다'는 지리적 존재와 이미지가 드러나고, 그 이미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성과 공감성이 상호주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서 교가라는 스테레오 타입성에 의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표상하는 작사의 틀이 개입되었다는 점과 특정 작사가 많은 학교의 교가를 작사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이면서 한편으로 고착된 사고와 형식이 개입되어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산을 대상으로 이미지의 표상작업과 그 표상 자체는 교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VI. 맺음말

무등산은 광주에서 무등산을 가는 버스 노선은 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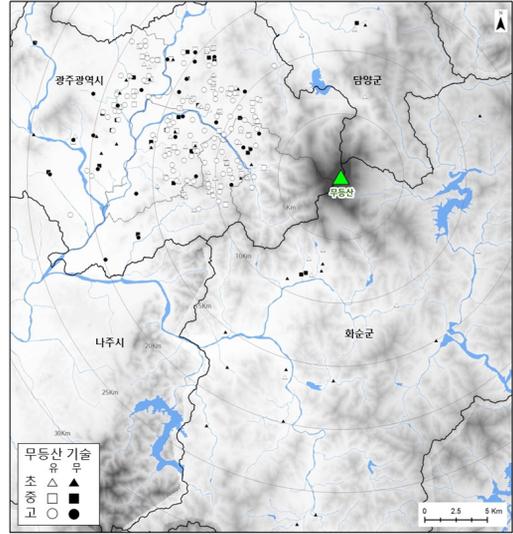


그림 9. 무등산 인근 학교의 분포와 교가 속의 '무등산' 표기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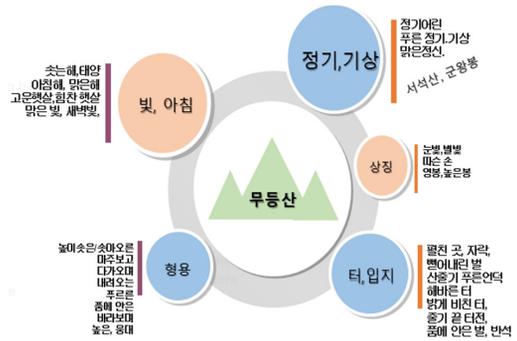


그림 10. 교가 속의 무등산에 대한 표상 이미지

산 높이를 상징하는 1187번을 비롯하여 9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라 도심에서 대체로 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항상 산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 표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자연 그 자체로의 의미와 함께 관계의 재구성에 따라 다른 장소감(장소성)을 갖는다. 사람의 삶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듯이 무등산도 물리적 데이터와 속성만으로 알 수가 없다. 이를 위해 무등산을 자연지리 이외의 다양한 인문자료의 생활세계에서 보완하고 재해석을 해보았다.

그간의 지리학은 무등산을 연구대상으로 지금까지 주로 자연지리적 방법적 접근의 틀에 머물렀다. 특히, 무등산과 같은 규모의 스케일에서 지리적 기술에 한계를

표 2. 광주시의 학교의 교가 가사 중 무등산 관련 내용 예시

학교명	교가의 가사내용	작사자
C고등학교	“무등산 아침해같이 눈부신 우리의 이상..”	이은상
K고등학교	“즐기찬 무등뒀에 희망도 크다..”	송규호
C여자고등학교	“무등산 마주보고 우뚝 솟았네..”	이은상
K여자고등학교	“높이 솟은 서석봉 정기를 안고..”	이혁
C중학교	“보아라 미더운 무등산 아래..”	허연
S중학교	“광주의 무등산 병풍처럼 둘러앉은..”	석용원
Y중학교	“아침해 떠오른다. 무등산마루..”	주기운
D중학교	“무등산 정기어린 밤골 기슭에..”	한정준
C초등학교	“구름 속 솟아 오른 무등산..”	이은상
S초등학교	“아침해 돌아나는 무등산 아래..”	이은상
D초등학교	“무등산 밑 서쪽 언덕 해바라기 터에..”	전동수
H초등학교	“아침 햇살 눈부신 무등산 아래..”	이은상

갖는다. 이런 점에서 무등산을 자연적 경관에서부터 인간주의적 관점의 풍경으로, 즉, 객관에서 이해의 차원으로 보기 위해 무등산의 자연경관, 장소감,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지리적 재해석을 통해 무등산이 자연적 단수에서 복수의 다양체로 구성되어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무등산은 광주와의 오래되고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무등산의 경관 중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과 같은 주상절리대는 무등산을 대표하는 경관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유산객들의 많은 텍스트 속에서 경관의 형태와 심지어 형성과정도 일부 묘사되고 의미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유관성이 드러났다. 무등산은 자연적 개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 개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적 심미성이나 생활세계의 경험과 가치는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지리학이 갖는 인문학의 갭을 메꾸면서 통합적 고찰의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었다.

장소로서 무등산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와 주체의 상대에 따라 위상과 장소감(장소성)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리적 위치성은 절대로 불변하는 속성은 바로 존재적 지리이고, 유일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은 다양한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됨과 동시에 자연적 단수에서 복수의 다양체로 구성되어 있음 알 수 있다. 현재,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 산으로서 존재론적 장소로 거듭나고, 세계지질공원과 같은

지평 확대를 통해 광주의 산에서 세계의 산으로 스케일과 장소성을 전환하고 있는 진행형으로 보인다.

무등산과 관련된 지역의 교가에서는 다른 주변지역보다 광주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고, 분포수도 가장 많았다. 특히 무등산의 고도, 산체를 포함한 경관과 형상 등이 ‘기상’과 ‘꿈’, ‘품안’ ‘햇살’ 등으로 은유되면서 각 급 학교의 교가 속에 깊게 이미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 많은 학교의 교가에 무등산이 ‘거기 있다’는 지리적 존재와 장소성을 아울러 함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표상적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무등산은 자연의 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재현된 장소로도 가능하지만, 장소의 변화와 이미지의 내재화로 지역적 표상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광주와 함께 연계된 존재적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학이 무등산을 단일 학문적 수준에서 일면을 파악하는 것을 종합하여 지리적 재해석을 통한 접근이 학문적 개념과 추론을 넘어 이해의 차원에서 경험된 자연으로 독해될 수 있다. 이러한 독해를 통한 인간행위는 자연을 보완하면서 자연을 미메시스(mimesis)하는 상호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무등산은 많은 글의 함축을 통해 상징이 필요하고 상징을 위한 감각의 심상이미지가 잠재된 무한한 자연의 실체이고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산과 같은 작은 스케일에서도 지리학의 종합과 재해석에 의한 재현이 필요하다.

註

1) 지질학과 지형학적 유산의 보전을 말한다. ‘geo-heritage’라고도 말한다. 지오파크나 세계자연유산은 이런 보전 체제이다(Goudie and Viles, 2010).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2013,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학술조사 및 체계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권수용, 2008,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인문연구, 55, 357-398.

권혁재, 1996,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서울: 법문사.

권혁재, 2004, 「(제4판) 지형학」, 서울: 법문사.

김대현, 2001,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화, 46, 1-19.

김대현·김석태·박명희·황금연 편역, 2010,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김민성, 2019, “체화된 인지의 의미와 지리교육에서의 활용” 한국지리학회지, 8(1), 1-18.

김상호, 2016, 「한반도 지형의 형성 (2권)」, 서울: 두솔.

김순배, 2010, “지명의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유교·불교·풍수 지명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1), 33-59.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김정배·김훈수·원병오·윤무부·주남철·최기철, 1997, 「한국의 자연과 인간」, 서울: 우리교육.

김종하·김요찬, 2004, “초·중·고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경관요소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경관요소 중에서 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6(3), 23-30.

김주경 역, 2001, 「대지에서 인간이로 산다는 것: 에쿠멘(인간적 거처)의 윤리적 원리」, 서울: 미다스북스(Berque, A., 1996, *Etre humains sur la terre: principes d'éthique de l'écoumène*. Paris: Gallimard).

김지수, 2018,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로 침식 특성: 중심사~중머리재, 제2수원사~중머리재 구간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수, 2005, “무등산 산지 지형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경수, 2005,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 225-253.

나기남, 1997, “무등산 테일러스의 성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미경, 2000, “박두진의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우리문화기술, 7, 33-55.

박건주 역, 1993, 「풍토와 인간」, 서울: 장승(和世哲郎, 1979, 「風土—人間學的考察」, 東京: 岩波文庫).

박선홍, 1977, 「무등산-유래, 전설, 경관」, 광주: 전남매일출판국.

박선홍, 2003, 「무등산: 무등산의 유래와 전설·경관」, 서울: 다지리.

박승필, 1991, “무등산 거력군(일명 “너털경”)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2, 205-227.

박승필, 1996, “무등산 지역의 지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3(2), 115-134.

박승필·오중주·강환승, 2012, “무등산 무돌길의 발굴과 지형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36-38.

박철웅, 1994, “한반도 남서부 해안산지 사면의 특색과 제4기 기후지형환경”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철웅, 2005, “강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남도의 강줄기” 전대신문 편, 「(新 전라도 기행) 전라도를 다시 본다」,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52-61.

박철웅, 2009, “진도 관매도의 지형경관과 삶의 지속성 이해” 남도민속연구, 18, 71-103.

박철웅, 2013,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자연환경” 화순군청·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편, 「무등산 주상절리대 종합 학술조사」, 24-31.

박철웅, 2017, “무등산 너털지대의 온혈 현상” 한국지리학회지, 6(3), 381-393.

박철웅·김인철, 2012, “지석묘의 입지특성과 축조방식에 대한 지형학적 고찰 -효산리, 대신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9(3), 23-36.

범대순, 2013, 「무등산 범대순 시집」, 광주: 문화들.

뿌리깊은나무 편, 1983, 「한국의 발간 전라남도 편」, 서울: 뿌리깊은나무.

서태열, 2019,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수록된 세계지리 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8(3), 377-397.

서혜연, 2004, “한국 산지의 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터크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건상, 2010, “무등산 도립공원의 지질과 경관” 암석학회지, 19(2), 109-165.

- 안건상·허민·손정모, 2014, “국립공원 무등산의 지질 형성사와 자연경관” 지질학회지, 50(1), 91-105.
- 양해근, 2004. “무등산 자연생태의 지화학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1(1), 29-40.
- 오구균·김보현, 2010, “무등산도립공원 탐방객 통행 패턴”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1), 190-192.
- 오세정, 2006,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우리말글, 37, 229-252.
- 오종주, 2012, “무등산 암설 지형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종주·박승필·성영배, 2012a, “무등산 암설지형의 유형과 특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253-267.
- 오종주·박승필·성영배, 2012b, “무등산 평활사면(cryoplanation surface)의 형성시기와 분포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9(1), 83-97.
- 이광수, 1968, 「오도답과: 이광수 전집 18」, 서울: 삼중당.
- 이동순, 2009,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조태일 시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은상, 1958, 「노산문선(鷲山文選)」, 서울: 영창서관.
- 이은식, 2013, 「지명이 품은 한국사: 6. 지명 유래 서울 호남 편」, 서울: 타오름.
- 임준성, 2012, “무등산 사찰제영시 연구” 한민족어문학, 62, 211-241.
- 장하석, 2014,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서울: 지식재널 이비에스미디어.
- 장호, 1983, “지리산지 주능선동부(세석·제석봉)의 주빙하지형” 지리학, 18(1), 31-50.
- 조강봉, 2016, “무진(武珍), 마돌·마진·마등량(馬突·馬珍·馬等良), 난진아·월량(難珍阿·月良), 난등량(難等良), 월나(月奈)에 대하여” 지명학, 24, 71-97.
- 최남선, 1926, 「심춘순례(尋春巡禮)」(임선빈 역, 2013, 「한국학 총서 11」 심춘순례, 서울: 경인문화사).
- 주남철, 2006, 「(개정판) 한국건축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슬야, 2016,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전과 후 광주시민의 이미지 비교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선, 1995, 「자연사 기행한반도는 숨쉬고 있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 하경량, 1999, “퍼지집합에 기반한 GIS 적지분석에 관한 연구: 무등산 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적지분석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금수 역, 2008, 「인간과 자연」, 파주: 한길사(Marsh, G.P., 1864, *Man and Natur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金榮纂, 1810, 「輯泰山志 卷1-20」(早稲田大学図書館 所蔵本).
- 内田順文, 1987, “地名・場所・場所イメージ・場所イメージの記号化に関する試論,” 人文地理, 39(5), 1-15.
- 木内信蔵, 1960, “地理学の本質 —ハー ツホンの再論をめぐつて,” 地學雜誌, 717, 23-29.
- 矢部恒彦·北原理雄·徳山郁芳, 1995, “小学校校歌に謳われた全国の地域景観イメージ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472, 111-122.
- 塚田伸也·森田哲夫·橋本隆·湯沢昭, 2013, “群馬県中学校の校歌を事例としたテキスト分析により導かれる山岳の景観言語の検討” ランドスケープ研究, 76(5), 727-730.
- 犬塚悠, 2014, “オギユ…スタン・ペルク風土学の生成と構造”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紀要, 86, 207-224.
- Bagnold, R.A., 1941, *The Physics of Blown Sand and Desert Dunes*, London: Methuen.
- Bandyopadhyay, J., Rodda, J.D., Kattelmann, R., Kundzewicz, Z.W., and Kraemer, D., 1997, Highland waters: A resource of global significance, in B. Messerli, B. and Ives, J.D., eds., *Mountains of the World: A Global Priority*, New York: Parthenon Pub., 131-155.
- Barnes, T.J. and Gregory, D., 1997, *Reading Human Geography: The Poetics and Politics of Inquiry*, 1st edition, London: Arnold.
- Bermúdez, A. and Delpino, D.H., 2008, Concentric and radial joint systems within basic sills and their associated porosity enhancement, Neuquén Basin, Argentina, *Geological Society*, 302(1), 185-198.
- Bradley, R.S., 1985, *Quaternary Paleoclimatology: Methods of Paleoclimatic Reconstruction*, Boston: Allen & Unwin.
- Buttimer, A., 1993, *Geography and the Human Spir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resswell, T., 1996, Place/Out of place, in Johnston, R.J., Gregory, D., Pratt, G., Watts, M.,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ition,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584-585.
- Fenneman, N.M., 1919, The circumference of geography, *Geographical Review*, 7(3), 168-175.

- Gieseking, J.J., 2017, Geographical imagination, in Richardson, D., Castree, N., Goodchild, M., Jaffrey, A., Liu, W., Kobayashi, A., and Marston, R., eds., 201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People, the Earth, Environment, and Technology*, New York: Wiley-Blackwell and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5.
- Goudie, A. and Viles, H., 2010, *Landscapes and Geomorp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inchliffe, S., 2005, Nature/Culture, in Atkinson, D., Jackson, P., Sibley, D., and Washbourne, N.,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London: I.B. Tauris, 194-199(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2011, 『현대문화지리학: 주요개념의 비판적 이해』, 서울: 논형, 353-358).
- Ollier, C., 1988, *Volcanoes*, New York: Blackwell.
- Powell, J.W., 1895, *Canyons of the Colorado*, Flood and Flood and Vincent: New York.
- Price, M.F., 2008, Representing mountains: From local and national to global common good, *Geopolitics*, 13(1), 148-168.
- Price, M.F., Byers, A.C., Friend, D.A., Kohler, T., and Price, L.W., eds., 2013, *Mountain Geography: Physical and Human Dimens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ince, H., 1961,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Landscape*, 11, 22-25.
- Ro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Viviroli, D., Dürr, H.H., Messerli, B., Meybeck, M., and Weingartner, R., 2007, Mountains of the world, water towers for humanity: Typology, mapping and global significance, *Water Resources Research*, 43(7) (doi: org/10.1029/2006WR005653).
- Watson, E., trans., 1970, *Geomorphology of Cold Environments*, London: Macmillan.
- Wright, J.K., 1947, *Terrae incognitae: The place of the imagination i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37(1), 1-15.
-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1일자, “英雄會議”
-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4일자, “人傑地靈”
- 매일신보, 1919년 6월 3일자, “광주: 무등산과 원주민”
- 매일신보, 1924년 6월 6일자, “무등산폭포”
- 매일신보, 1926년 6월 9일자, “무등산 수원지에 산보를 일절 엄금”
- 매일신보, 1931년 4월 7일자, “光州에도 春雪 無等山에는 白雪皚皚”
- 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자, “無等山을 神域으로 全南서 造林計畫”
- 부산일보, 1936년 3월 19일자, “무등산 정복, 古市警察部長 引率, 警官隊 一行의 登山”
- 부산일보, 1941년 4월 16일자, “무등산의 녹화, 착착 진척 하다”
- 조선신문, 1928년 8월 25일자, “무등산의 비밀회합의 청년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 조선신문, 1928년 9월 27일자, “무등산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도로 개설”
- 조선신문, 1929년 1월 19일자, “無等山にスキー場を設置, 有志の計畫を進む”
- 조선신문, 1931년 8월 23일자, “全羅南道, 無等山に猛虎가 出没する, 光州署で近く 虎狩り”
- 조선신문, 1933년 7월 29일자, “涼味を求めて[10], 光州の無等山に偉大な風光を探る, 瑞石山の名を得たは珍らしい石柱の集りから”
- 중외일보, 1930년 5월 14일자, “광주 饑民으로 무등산이 人山化”
- 한겨레, 2006년 8월 31일자, “교가, 이도 저도 비슷하니 ‘의미가 없네’”
- 호남신문, 1948년 9월 19일자, “광주국민고등교 교사난 해결에 서광”
- 호남신문, 1949년 11월 1일자, “無等山봉우리에 첫눈 昨年보다 約 한달 빠르게”
- 월간 산, 2017년 4월호, “[한국의 산신(山神) (16) 광주 무등산] 자연승배 산신신앙에 구전으로 김덕령 산신설”
- 기상청, “국내기후자료: 전라남도”, https://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regional03.jsp#a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칼럼: 가을 여행주간 가볼만한 곳 광주 무등산(이돈삼 자유기고가)”, <http://www.>

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
823880&pWise=authorWriting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science/geography>
National Geographic, <https://www.nationalgeographic.org/education/what-is-geography/>

교신 : 박철웅,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
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parkcw@jnu.ac.kr)

Correspondence : Chul Woong Park, 61186, 77 Yongbong-
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parkcw@jnu.ac.kr)

투고접수일: 2020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16일

